

중국 귀주성 묘족 단채납염의 효능과 표현의 특성⁺

이민정* · 손희순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Efficacy an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Danzhai Miao Batik of Guizhou China

Lee Minjeong* · Sohn Heesoon

Lectur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formative of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 in Danzhai Miao batik of Guizhou China and to reveal the cultural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artistic expression inherent to it. As the research methodology, theoretical study was done by utilizing the preceding research data, literature data at home and abroad, photo data, and Internet data, and as the empirical research, field trip was made to Guizhou China and investigation and experiment of dyeing techniques, purchase of dyeing craftworks, photography shooting,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ed that ancient Chinese batik began in Miao in the Jinhan era and the three types of Miao's traditional batik, i.e. Danzhai batik, Huangping batik, Anshun batik. Danzhai Miao batik obtained indigo blue white patterns through traditional production techniques and natural dyeing batik and represented Miao batik of Guizhou. In the expression of Danzhai Miao batik, based on the cultural backgrounds, the formative such as symbolic of patterns, tradition, primitive, reality, abstract, and decorative of dress designs and high dignity of artistry of creative batik patterns be found from the aspect of expressing magnanimous nationality.

Key Words : batik(납염), Danzhai batik(단채납염), Danzhai Miao batik(묘족 단채납염), Miao(묘족)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을 부분 발췌한 것입니다.

1. 서론

중국 서남부지역인 귀주성(貴州省, Guizhou)에는 한족(漢族, Chinese)을 비롯해 묘족(苗族, miao)을 포함하여 49개 민족이 모여 살고 있다. 이 가운데 묘족은 귀주성을 대표하는 소수민족으로서 중국내 묘족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4백만 명 가량이 이곳 동남부에 위치한 검동남묘족동족자치주(黔东南苗族侗族自治, Qiandongnan)에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동남지역은 묘족 전통 문화가 가장 잘 보존 계승되고 있으며, 살아있는 묘족 전통 문화의 보고(寶庫)라 불리고 있다. 특히 검동남지역의 묘족 전통 복식은 자수와 납염 등의 문양에 화려하고 독특한 민족 문화를 반영하고 있어 민속학자나 복식연구가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특히 납염공예는 그 기원을 묘족에게 두고 있으며 현대 중국 전통 염색 공예를 대표하고 있다.

중국 귀주성 묘족 납염공예에 있어 문양은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묘족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묘족 납염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단채납염(丹寨蠟染, Danzhai batik), 황평납염(黃平蠟染, Huangping batik), 안순납염(安順蠟染, Anshun batik)이 있다. 그 중 단채납염은 천연염색 가운데 남염(藍染, Indigo dyeing)을 이용한 납염으로, 전통적 제조방식과 문양 표현에 있어서 묘족의 미의식을 표현하는 시각적 조형예술로서 예술성을 높여 평가 받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그 전통이 계승 발전되고 있다.

중국 귀주성 묘족 복식문화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로는 정하신¹⁾, 김연정²⁾, 김희섭³⁾, 김영신, 홍정민⁴⁾, 김영신⁵⁾, 백계⁶⁾, 정미숙⁷⁾ 등이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중국 귀주성 묘족 복식의 유형 및 자수기법과 문양에 대한 것에 국한되어 있으며, 납염공예는 복식의 장식적 요소로 일부분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귀주성 묘족 납염공예를 중심으로 묘족의 복식문화, 묘족 납염의 기원, 묘족 납염의 유형 및 특징 등의 일반적 고찰과 단채납염의 제작기법, 문양의 종류, 납염도안의 조형원리 및 조형성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단채납염 문양의 표현

적 특성을 파악하여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요소 및 예술적 표현 특성을 규명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고취시키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을 통한 이론 연구와 현지답사를 통한 실증 연구에 의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선행 연구 자료, 국내외 중국의 복식·풍속·민간공예 등의 관련 문헌 자료와 사진 자료,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였고, 실증 연구는 2008년 2월~3월 사이 중국 귀주성 단채현과 안순시를 현지 답사하여 염색과정조사, 염색실험, 염색 공예 실물 관찰 및 구입, 서적 구입, 사진 촬영,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II. 중국 귀주성 묘족 납염공예의 일반적 고찰

1. 묘족의 복식문화

묘족 남성들은 농경생활과 함께 약초 채집·수렴을 하고, 여성들은 농사일을 하며 방직을 하거나 자수, 납염 등을 행한다. 주요 생업을 농업으로 하는 묘족의 신앙은 농경사회의 물신(物神)숭배, 토템(Totem) 숭배와 더불어 조상 숭배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샤머니즘의 종교의식으로 발전되어 묘족 문화형성에 주축이 된다. 묘족에게 있어 술, 노래, 춤은 샤머니즘의 주술적 의식을 통해 자연숭배, 조상숭배에 대한 제사와 명절날 축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제례와 축제는 묘족의 독특하고 화려한 복식문화를 이루는데 기인하게 되며, 척박한 지리적 환경과 고난의 역사를 유쾌한 민족성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가 되었다. 罗义群⁸⁾은 그의 논문에서 샤먼(무당)은 원시 종교를 수반하고, 주술적인 목적을 가지며, 춤, 노래, 의식에 필요한 몸치장, 그 밖에 필요한 도구들은 샤머니즘과 예술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샤머니즘은 예술적 철학의 기초로서 미신에 의한 관념론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묘족 샤머니즘은 묘족 문화의 운송수단과 미신적 관념론으로서 전설, 신화를 비롯한 노래, 무용, 연극 등 축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종교적인 배경으로 형성된 묘족의 미의식과 복식문화를 ‘묘족 샤먼

니즘 조형예술'로 일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묘족 복식문화에서 나타난 조형예술은 크게 납염(蠟染), 자수(刺繡), 은장식(銀裝飾), 금직(錦織), 도화(挑花, 십자수)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복식의 장식으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은장식에 소뿔을 사용하는 것은 소를 토tem으로 하는 것에 기인하며, 자수나 납염에 나비 문양을 사용하는 것은 나비 토tem과 나비 어머니(蝴蝶媽媽) 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서 선조의 보살핌을 영원하는 기원이 담겨 있다. 또한 납염에 밀랍을 대신하여 풍액염(楓液染)을 사용했던 것은 단풍나무(楓香樹) 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으려한 것에 기인한다. 이 외에도 그들은 종교적 관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양과 색채를 이용한 화려하고 독특한 복식문화를 묘족 사머니즘 조형예술로 승화,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묘족 납염의 기원

'뭇'은 마음(心)을 뜻하며, '단풍나무 노래'의 '나비어머니'라는 고대 묘족 시(詩)중에서는 묘족을 인류의 시조로 화상하였다. 즉 단풍나무 중심지가 음양(陰陽)을 통해 꽃나비로 변하고 12개의 알을 낳아 용, 범, 코끼리, 뱀 등과 함께 인류의 시조 강양(姜央)을 깨웠으며, 이 강양이 사람을 만들고 인류는 여기서부터 번영하였다고 한다. 귀주성 묘어(苗語)로는 나무 중심을 'hmongb'라고 하는데 음이 '묘'에 근사하다. 이렇게 묘족의 지칭을 오랜 인류의 시원(始原)에서 전설되었다고 믿고, 지금까지도 많은 묘족부락에서 단풍나무를 숭배하고 있는 것은 단풍나무가 인류의 발원지이고 또 자신들 조상의 안식처라고 믿기 때문이다.⁹⁾ 이와 같이 '나비어머니'와 '단풍나무' 전설은 고대 묘족 사회로부터 조상숭배와 자연숭배의 일종으로 민간신앙의 중심이 되고, 방직공예가 단풍나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풍나무가 방직에 관련되었다고 보는 것은, 묘족에게 풍잠(楓蠶)성유가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늘날 묘족 지역에 분포된 단풍나무 숲에서 잠견(蠶繭)과 비슷한 선잠(蟬蠶)이나 기타 총잠(蟲蠶)을 흔히 볼 수 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묘족 전설에 의하면, 조상들이 이런 풍잠을 내려 주어서 실을 뽑아 견직물을 짰다고 한다. 사료에 의하

면, 묘족의 방직, 염색, 자수, 즉 민속공예와 연관되는 풍액염(楓液染)은 단풍나무 수지를 방염제(防染濟)로 사용하는 염화(染花)공예로써 오늘날에도 여전히 묘족 염색 공예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인염(印染) 전문가들은 납염(蠟染)보다 풍염(楓染)이 시간적으로 더 먼저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¹⁰⁾

중국 전통 염색공예의 역사를 고찰한 바에 의하면, 吳淑生, 田自乘¹¹⁾은 납염에 대해 진(秦)말기에서 한대(漢代)에 걸쳐 서남지방의 소수민족인 묘족에게서 납염이 시작되었고,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에는 상당히 유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신강민풍동한묘¹²⁾에서 출토된 납염화포(蠟染花布)를 통하여서도 납염이 당시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문헌자료 고찰 결과, 중국 고대 납염은 진한시대 묘족에게서 시작되었고, 묘족 납염의 기원은 진한시대 이전의 풍염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묘족 납염의 유형 및 특징

중국 귀주성 전통 납염에는 방염액의 재료에 따라 납염(蠟染), 풍염(楓染), 송지염(松脂染) 등으로 분류되며, 납염 기법에 따라 점납(點蠟)¹³⁾, 빙납(氷蠟, Crack)¹⁴⁾, 다색납염(多色蠟染) 등으로 유형과 특징이 분류되지만, 납염을 제작하는 각 소수민족에 따라 서로 여러 유형으로 나뉘고 풍격 또한 다르다. 이와 같이 귀주성 전통 납염은 각 소수민족이 대집거하는 지역, 소수민족, 사용재료 및 기법 등에 따라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각각의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현재 중국 대부분의 현지 사람들과 문헌 속에서는 귀주성 전통 납염을 '묘족 납염'이라 통칭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귀주성 묘족 전통 납염의 유형은 민족적 분류를 제외한 지역적 특색과 貴州傳統蠟染¹⁵⁾, 中國工藝美術叢書·貴州蠟染¹⁶⁾ 문헌 고증과 연구자가 직접 귀주성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 분석 결과 및 최근 인터넷 자료의 분류 동향을 토대로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라 '단채납염', '황평납염', '안순납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1>¹⁷⁾은 귀주성 묘족 납염의 대표적 유형인 단채납염, 황평납염, 안순납염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1) 단채납염

귀주성 단채현에 있는 배막촌(排莫村, Paimocun)은 묘족 전통 납염의 3대 고향 중 하나이자 중국 고대 납염 예술의 발원지이다. 배막촌은 귀주성 단채현에서 2시간가량 고산 협곡을 구불구불 돌아 이르게 되는 고대 금계묘족(金鷄苗, Jinjimiao)¹⁸⁾의 촌락이다. 금계묘는 묘족의 한 갈래이고, 이곳 여성들은 보통 5~7세부터 그녀의 어머니나 할머니로부터 전통 납염을 배우고 평생 동안 그 전통을 이용하여 납염공예를 한다.

단채납염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이미 한대에서부터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한대 축제와 제사에 사용했던 동고(銅鼓)에 밀랍을 발라서 천위에 문양을 찍어 나타낸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후, 동납도를 발명하고, 밀랍을 이용하여 직접 천에다 문양을 그리게 되었다.

단채납염의 특징은 자신들의 수직기로 제작한 전통조직의 면포인 두문포(斗紋布)에 밀랍으로 문양을 방염 처리한 후, 남(藍, Indigo)염료에 침염을 하여 얻는 남청색 바탕에 백색 문양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특히 문양의 표현기법은 동납도를 이용한 점납으로, 동·식물을 다양하고 대담하게 변형시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종교성을 내포하면서 풍부한 예술적 상상력과 창조력을 기반으로 표현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를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날아오르는 것, 얼굴에 표정을 담은 것 등 움직임이나 감정이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고, 새의 다리가 등에 달리거나 용의 머리에 물고기 머리를 달거나 하는 등 상상력에 의한 독창적 표현을 행한다. 그들은 밑그림 없이 자유로이 그림을 그리며 무한한 예술성과 독창성을 표현하는 기법을 취하고 있다.

단채납염은 고산지대로 외부와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적 특성과 금계묘의 전통적 민족성으로 인해 묘족의 전통과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전통적인 납염기법이 그대로 보존 계승되어지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자급자족의 생활 속에서 제작되는 납염은 유구한 역사의 발전과정을 통해 풍부한 창작 경험을 축적하고, 독특한 민족 예술의 풍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중국 귀주성 묘족의 전통 납염공예

를 대표하고 있다.

2) 황평납염

중국 귀주성 검동남주 단채현 북쪽에 위치한 중안강 일대의 황평현 풍향채(楓香寨, Fengxiangzhai)는 또 다른 '납염의 고향'으로서 귀주성 전통납염의 3대 납염 기지 중의 하나이다. 이곳은 혁가족(革家族, Gejia)이 대집거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혁가족은 아직 중국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족으로 공식 인정받지 못한 민족이어서 현재까지는 묘족의 한 갈래로 분류되고 있다. 화려한 전통 복식을 평상시에도 예를 다해 갖춰 차려입고 생활을 하는 혁가족 여성들에게 납염공예는 불가결한 삶의 일부분이며, 특유한 표현기법으로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황평납염의 특징은 <그림 2>¹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밀한 기하학 문양을 특징으로 한다. 그 외 문양은 묘족 민족 신앙, 토템을 위주로 하고, 자연문양인 꽃, 새, 벌레, 물고기 등 단채납염의 문양과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조형적 표현기법에 있어서는 단채납염보다 더 구도적이며 대칭적이고, 동납도 대신 죽침(竹枕)이나 죽피(竹皮)를 사용하여 작은 점문(點紋)과 얇은 선을 표현하는 특징을 지닌다. 염료는 천연염료를 사용하며, 남청색 바탕과 백색 문양 사이에 덧붙여 노란색 수를 놓거나, 붉은색 또는 노란색을 섞어 화려함을 보이기도 한다.

향후 혁가족이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이 된다면 황평현의 납염과 복식은 혁가족의 것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고 본다.

3) 안순납염

중국 귀주성 안순시 황과수 폭포에 인접한 석두채(石頭寨, Shotouzhai)에서는 민간 납염을 주민의 80% 이상이 행하고 있으며, 단채현과 황평현에 이은 또 하나의 유명한 납염의 고향이다. 이곳의 납염은 주로 부이족(布依, BuyiZu) 여성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이들은 12~13세부터 납염 기술을 익히고 있다. 서정적인 꽃과 다양한 과일 문양이나 기하학 문양 등으로 부이족 납염의 특색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1973년 안순시에 첫 납염공장이 설립되면서 안순시는 지역의 특화된 산업으로 납염공예품 생산

기지국이 되었다. 이 후 각 대학이나 전문 미술공예 학교에서 전통납염공예와 다양한 현대 회화기법을 접목시킨 현대 염색예술로 전문 납염예술인을 양성하여 현재에 이르러 다채로운 납염공예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순납염은 전통과 현대적 예술기법의 조화에 따라 다양한 추상화로 표현된다. 또한 전통 문화 상품과 예술성이 높은 ‘납염화(蠟染畫)’는 중국 전 지역과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독창적인 염색 예술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안순납염의 특징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빙납 기법을 사용하여 빙문(氷紋)을 주로 표현하며, 다색납염으로서 단채납염과 황평납염과는 표현기법에서 다른 두드러진 특징을 지니고 있다. 빙문은 ‘납염의 영혼’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회화적인 납염 표현에 주로 이용되며 납염공예가들에 특히 사랑을 받는 문양이자 기법이다. 전통적인 납염공예에서는 천연염료를 사용하는데 본 연구자의 현지 조사한 결과, 안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납염제품은 그 수요에 비해 천연염료 공급이 원활치 못하고 색채 표현에 한계가 있어 화학염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현대에 이르러 독일 등지에서 수입한 화학염료를 사용하고 있어 색상표현이 3도 이상 더욱 다채롭게 변화되어 전통기법에서 많이 벗어나 현대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고찰 결과, 단채납염은 세 가지 유형의 묘족 납염공예 중, 귀주성 묘족 납염의 전통적인 납염 제작기법과 더불어 전통염료인 납염을 사용하여 얻

는 남청색 바탕의 백색 문양을 특징으로 하며, 예술적 표현성과 묘족의 민족적 풍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 현재 묘족 납염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중국 귀주성 묘족 단채납염의 표현적 특성

본문에서는 중국 귀주성 묘족 납염을 대표하고, 묘족 전통 문화와 제작 방식 및 기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채납염을 중심으로, 그 전통적 기법과 문양의 종류를 고찰하여 납염도안의 조형원리 및 표현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1. 단채납염의 기법





단채납염 공정은 남초와 면화를 재배하여 염료를 추출하고, 면직물을 방직하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흰 면포 위에 문양을 스케치하고, 점납 기법으로 무늬를 방염한 후, 납염, 납 제거, 세척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본고에서의 中华传统老作坊--走近染布坊²⁰⁾과 贵州传统蜡染의 문헌고증과 현재 귀주성 단채현 배막촌 전통 납염의 장인이자 묘족인 楊貽燕의 작업과정과 제작설명을 토대로 하여 단채납염의 제작과정을 통하여 기법을 살펴보고자 한다<표 2>²¹⁾.

<표 1> 중국 귀주성 묘족 납염의 유형

		
<p><그림 1> 단채납염 - 본 연구자 사진자료</p>	<p><그림 2> 황평납염 - 民间染织, p.111</p>	<p><그림 3> 안순납염 - 본 연구자 소장품</p>

<표 2> 중국 귀주성 단채납염 제작과정

	
<p><그림 4> 두문포 - 본 연구자 사진자료</p>	<p><그림 5> 밀랍 - 中华传统老作坊--走近染布坊, p.130</p>
	
<p><그림 6> 동납도 - 中华传统老作坊--走近染布坊, p.132</p>	<p><그림 7> 남초와 염료 - 본 연구자 사진자료</p>
	
<p><그림 8> 점납 - 본 연구자 사진자료</p>	<p><그림 9> 남염 - 본 연구자 사진자료</p>
	
<p><그림 10> 탈납 - 中华传统老作坊--走近染布坊, p.139</p>	<p><그림 11> 세척 및 건조 - 中华传统老作坊--走近染布坊, p.140</p>

1) 염포(染布)

앞서의 단채납염 고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묘족은 수직기로 표면에 요철감이 있는 마름모꼴 전통조직의 면포인 두문포(斗紋布)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한다<그림 4>. 이러한 포(布)는 두껍고 오래 쓸 수 있으며 염색의 견뢰도를 높여준다. 납을 그리기 전에 풀을 먹여서 점납이 용이하게 한다. 그 외에 무지 면포, 마포, 순견 등의 천을 사용하기도 한다.

2) 방염제(防染劑)

밀랍, 백랍, 단풍나무 진액 등을 고온으로 녹여서 방염제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밀랍과 백랍을 섞어 사용하는데 현재는 파라핀으로 대신하고 있다<그림 5>.

3) 납염도구(蠟染道具)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단채납염의 점납에는 동납도

(銅蠟刀, 구리로 만든 작은 부채꼴 모양의 납 칼) 사용을 특징으로 한다<그림 6>. 동납도는 점납을 하는 동안 납이 굳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도안을 자유롭게 하여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외에 대나무를 가늘고 길게 하여 직선을 그리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편촉처럼 갈아서 죽침(竹枕)을 만들어 작은 점을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4) 염료(染料)

귀주성 감동남 지역의 묘족은 예부터 남초(藍草: 쪽, Indigo)를 재배하여 염료로 사용해 왔다<그림 7>. 이 지역 남초는 일반적으로 봄부터 여름까지 재배한다. 남초 성장에 필요한 기온과 습도가 적절하여 품질이 우수한 남초를 얻을 수 있고, 특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염료 추출 방법으로 염색의 견뢰도가 우수한 염료를 얻을 수 있다. 또 한 번 사용된 염료는 짧게는 3~4개월에서 최대 5~6개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²²⁾

5) 점납(點蠟)

점납이란 화납(畫蠟)이라고도 하며, 천위에 납으로 그림을 그려 문양을 방염하는 과정이다. 준비된 천위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 놓거나 혹은 밑그림 없이 납액으로 동납도를 이용하여 문양을 그린다<그림 8>. 이때 사용되는 문양은 묘족 신화나 전설에서 유래된 토템, 자연현상, 기하학 무늬 또는 상상의 문양을 독창적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단채납염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이자 특징이며, 민족적 풍격이 농후한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다.

6) 납염(藍染)

납염 도안이 끝나면 남초 염료 통에 자신이 원하는 색상이 나올 때까지 침염과 건조를 수차례 반복하는 납염 작업을 한다<그림 9>. 단채납염은 차가운 온도에서 납염을 하는데, 침염 시간은 일반적으로 20분 정도이다. 농후한 색을 얻고자하면 두 시간에서 하루이상을 할 수도 있다. 이때 건조는 그늘에서 한다. 침염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검정색에 가까

운 짙은 남색을 얻을 수 있고, 침염과 건조의 횟수는 얻고자 하는 색의 정도에 따라서 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한다.

7) 후처리(後處理)

이와 같은 일련의 공정이 끝나면 납염제거(脫蠟), 세탁과 건조(清洗晾晒) 등의 과정을 거쳐 납염을 완성한다<그림 10, 11>.

2. 단채납염 문양의 조형성

묘족 납염 문양의 기원은 묘족 납염의 전설이나 신화, 고가(古歌)에서 기원하며, 문양의 대상(源泉, Source)은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전설과 신화, 토템, 조상숭배, 자연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중 기하학문양, 자연현상을 도안화한 것이 많으며, 자연 현상의 내용은 자연의 동·식물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상상으로 그들의 토템이나 신령 계를 구상화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문양들은 다채로운 꽃문양과 나비문양, 구름문양과 서로 혼합되어 화려한 풍격을 지니며 묘족의 독창적이고 호방한 민족성과 문화를 단채납염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양정문은 그의 저서 묘족복식문화사에서 묘족 문양을 크게 기하문양, 동물문양, 식물문양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中华传统老作坊--走近染布坊에서는 묘족 납염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하학문양, 용문양, 물고기문양, 새문양, 나비문양, 화초문양(花草紋樣)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위의 기하학, 동물문양, 식물문양의 세 가지 유형을 토대로 단채납염 문양의 종류를 8가지로 분류 고찰하고, 납염도안의 조형원리 및 문양이 내포하고 있는 표현적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표 3>²³⁾.

1) 단채납염 문양의 종류

(1) 기하학문양

기하학문양은 인류의 무늬장식 중에서 가장 일찍부터 나타난 것으로 복식에 가장 먼저 사용된 것으

로 보이며, 묘족의 복식을 장식하는 문양으로 가장 폭 넓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묘족의 기하학 문양 중에서 ‘十’자형과 ‘卍’자형, ‘回’자형 등은 가장 일찍 나타난 것이며, 또한 기하학문양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²⁴⁾

이러한 기하학문양은 동남도를 사용하여 다양한 두께의 선을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하며, 마름모형 문양과 바둑판 문양 등을 표현하고, 죽침(竹針)을 이용하여 세밀한 점묘문양을 표현한다. 기하학문양에는 점문양, 기하학문양, 자연의 형태를 본떠 구상화한 문양, 그리고 길상문양(吉祥紋樣) 등이 있으며, 동고문, 와타문 등에서 그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림 12~15>.

(2) 동고문(銅鼓紋)

동고는 구리로 테를 두른 작은 북을 의미하며, 중국 서남부 소수민족의 주요 제기와 악기이다. 이러한 고대 동고는 묘족 납염문양의 초기형태로써 묘족 전통 납염문양인 동고문으로 표현되고 있는 주요 문양이다<그림 12>.

또한 동고문은 묘족의 태양 숭배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원시사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만물의 중심을 태양으로 여기고 있어, 동고문의 중심에 태양이 빛을 방사하는 문양이 있다. 태양을 상징하는 동심원은 튼날, 바늘, 꽃잎, 새, 물고기, 만자문, 수자문 등으로 다채롭게 표현되고 있다.

(3) 와타문(渦妥紋)

소용돌이 문양 즉, 와타문은 프로펠러 문양이라고도 하며, 단채납염 특유의 오랜 전통 꽃무늬이다<그림 13>. 묘족 샤머니즘의 행사인 묘족 전설 ‘복지신제’의 성대한 의식에서 유래한다. 제사나 의식이 있을 때 입는 의복으로 소매나 어깨, 등 쪽 부위에 이 문양이 사용된다. 또한 병을 치유하는 문양이라 하여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는 병든 사람이 이 문양의 의복을 입고 나서 병이 치유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서 기인한다.

(4) 용문(龍紋)

용은 중국 최초의 토렘이다. 용 토렘 숭배는 최초

의 의식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과 재해를 예방하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자연 숭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용문은 묘족 복식 중에서 비교적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무늬장식이며 중국에서는 아주 독특한 문화로 나타났다. 특히 봉건시대에서는 용종(龍種) 및 용자(龍子), 용손(龍孫)으로 인정하는 황족만이 용문을 사용할 수 있었다.²⁵⁾ 이러한 용문을 묘족은 위엄 있고 고정된 한족의 용문과는 다르게 자유분방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때로는 천진난만하게 의인화하여 추상적인 표현으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용문은 그 명칭도 다양한데 수우용(水牛龍), 어용(魚龍), 사용(蛇龍), 비용(飛龍), 인두용(人頭龍), 계두용(鷄頭龍), 잠두비용(蠶頭飛龍), 어미용(魚尾龍), 수용(水龍) 등이 있다. 이밖에도 봉두용(鳳頭龍), 우두룡(牛頭龍), 조두룡(鳥頭龍) 등이 있으며, 묘족의 풍부한 예술적 상상력과 창조력으로 더욱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²⁶⁾ 조두룡은 새의 머리에 뱀의 몸과 용이 조합된 것으로 행복에 대한 갈망과 추구를 내포하며, 사용은 뱀과 곤충의 혼합된 형상을 하고 있다. 뱀은 재앙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며,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것으로 수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봉두용은 봉황의 머리에 용의 비늘이 형상화되어 있으며, 재물 복과 신변보호를 해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그림 16>.

5) 어문(魚紋)

어문은 묘족의 어렵(漁獵)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민간 종교관념 중에서 물고기는 후손이 번성한 상징이며 생명력의 상징이다. 묘족에게는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다. ‘물고기를 멸종시키려면 강이 말라야만 비로소 된다(要讓魚絕種, 除非河斷流).’²⁷⁾ 이러한 이유로 물고기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 용맹하고 아름다우며, 생식을 보존하며 숭배하는 것을 이해하는 최초의 의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물고기 알’은 자손과 같은 것으로 여겨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어문은 중국에서 고대로부터 사용된 오래된 문양으로써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단채(丹寨), 삼도(三都) 일대의 묘족 납염 이불 등

에는 어문 조형이 매우 다양하다. 입가에 두 개의 접시형(蝶翅形)의 지느러미가 있고 사편(四片), 엽형(葉形) 긴 꼬리가 있으며 원활하고 웅장한 몸집으로 조형을 이룬다. 조두어신(鳥頭魚身)으로 조형을 이루는데 몇 마리의 어신(魚身)으로 만든 화판(花瓣) 조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척골(脊骨)을 투시하는 조형도가 있는²⁸⁾ 반면 잉어, 금붕어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도 한다<그림 17>.

6) 조문(鳥紋)

한 대의 문헌에 기록된 고대 신화전설 중에는 오늘날의 묘족 혹은 묘족 조상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새 송배, 새 문화에 관한 흔적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묘족은 새를 토켄으로 하고, 모계 씨족사회를 상징한다. 묘가고가(苗族古歌 중, ‘단풍나무 윗부분은 비둘기로 변하고, 중간부분은 나비 어머니로 변하고, 뿌리부분은 작은 동고(銅鼓)로 변한다.’ 라는 부분이 나온다. 이렇듯 새는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류를 번성시킨다고 믿고 숭배하였다. 또한 전설의 삼쌍둥이 비둘기는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揚旆燕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이유로 묘족 여자들의 침구 혼수품에는 이 문양을 꼭 사용한다고 한다.

단채납염에서는 조문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물고기나 용, 그 밖의 다른 동물들과의 접목으로 추상적 표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새의 머리에 벌레의 형태를 그린다거나 다리의 표현에 있어 동물 다리를 그려 넣는 등의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사생적 표현을 하고 있다<그림 18>.

(7) 나비문양(蝴蝶紋)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묘족의 고사(古史) 신화 중에는 유명한 ‘十二个蛋’이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단풍나무가 나비 어머니를 낳고, 나비 어머니는 알 12개를 낳았다. 12개의 알은 척우조(鵲宇鳥)로부터 자연만물과 인류를 부화한다. 이 이야기에서 알의 부화를 책임진 척우조는 사실상 나비와 마찬가지로 시조의 역할을 하며 인류의 어머니 형상을 부각한다.²⁹⁾ 이와 같이 묘족에게 나비는 묘족의 조상이자 인류의 조상으로서 조

상송배와 나비토켄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전설속의 연인 량상보어(梁兄伯)와 주잉타이(祝英台)가 죽어서 나비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나비는 사랑하는 연인의 상징으로, 묘족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문양이며 다채롭게 다른 문양들과 어우러져 표현된다<그림 19>.

(8) 화초문양(花草紋樣)

단채납염의 화초문양은 새와 곤충 등과 함께 엄격함이 없이 활기차고 율동적인 선으로 다른 식물들과의 조화롭게 표현하고, 때로는 점묘기법으로 기하학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며, 사실적 표현과 더불어 단순화된 꽃문양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식물문양은 점, 선의 리듬으로 운율을 주며 정교함과 대담함과 과장적인 표현으로 자유롭고 호방한 은유적 표현으로 창조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다<그림 20, 21>.

2) 단채납염 문양의 표현적 특성

(1) 상징성

앞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단채납염 문양은 묘족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심미성을 토대로 형성되어 문양의 종류에 따라 그들의 종교 관념을 내포한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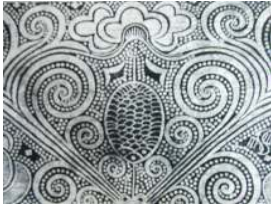

<표 3>은 단채납염 문양의 유형을 분류하여 문양 종류에 따라 나타난 조형요소·원리를 분석하고, 문양에 내포된 상징성을 정리하였으며, <그림 12~21>은 그에 따른 문양을 보여주고 있다.

(2) 원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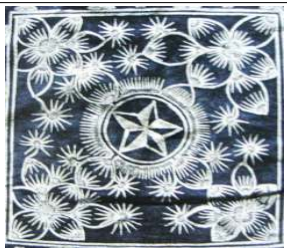

단채납염은 남초와 면화를 재배하여 염료와 염포를 얻으며, 동납도, 죽침이나 죽피를 이용하여 문양을 접납하는 전통 제작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표 4>³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 22>는 묘족의 고대 악기인 동고이고, <그림 23>은 동고에 새겨진 문양을 이용하여 기하학 문양을 표현한 동고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고문은 북고신제의 의례복의 문양으로 사용되었으며, 주술적 의미와 조상송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림 24>는 운남성 박물관에 소장된 청동기 원시 묘족의 벽화이고, <그림 25>는 벽화의 그림을 원천으로 하여 원시미술의

<표 3> 중국 귀주성 단채납염 문양의 상징성

문양 유형	조형 요소/원리	문양 종류	상징성
기하학 문양	점, 선을 이용하여 동고 형태를 표현하고, 방사형의 균형과 화면구성에 있어 강조 및 초점을 이루고 있다.		복고신제의례용, 주술적, 조상숭배
		<p><그림 12> 동고문 - 中华传统老作坊--走近染布坊, p.98.</p>	
	반복적인 선을 사용하여 소용돌이를 표현하고, 율동적인 동선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 길상, 새의 변형으로 토렘숭배
		<p><그림 13> 와타문 - 中华传统老作坊--走近染布坊, p.113.</p>	
쌀 모양의 점으로 기하학 형태를 만들고, 점들을 반복·연속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액의 방지, 귀신숭배	
	<p><그림 14> 쌀문양 - 贵州传统蜡染, p.58.</p>		
해와 구름의 자연현상을 점과 선으로 표현하고, 좌우대칭 구조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리듬감을 준다.		자연숭배	
	<p><그림 15> 해·구름문양 - 中华传统老作坊--走近染布坊, p.104.</p>		
동물문양	점, 선을 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여 조두룡 등의 형을 이루고, 추상적이며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다.		수호신, 토렘숭배, 생식숭배, 조상숭배
		<p><그림 16> 뱀·용문양 - 中华传统老作坊--走近染布坊, p.116.</p>	

<표 3> 계속

문양 유형	조형 요소/원리	문양 종류	상징성
동물문양	<p>점, 선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새의 형상을 이루고, 추상적이며 해학적인 표현으로 리듬감과 동세를 표현하고 있다.</p>	 <p><그림 17> 물고기문양 - 贵州传统蜡染, p.2.</p>	<p>자손번식, 토템숭배</p>
	<p>선과 점을 이용한 새의 형태이고, 동적인 선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으며, 좌우 대칭 구조로 균형각각을 이루고 있다.</p>	 <p><그림 18> 새문양 - 贵州传统蜡染, p.107.</p>	<p>사랑, 조상숭배, 토템숭배, 자손번식</p>
	<p>점, 선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좌우상하 대칭구조의 나비 형상을 이루며, 사실적인 표현과, 리듬감을 표현하고 있다.</p>	 <p><그림 19> 나비문양 - 民间染织, p.103.</p>	<p>사랑, 조상숭배, 토템숭배</p>
식물문양	<p>선을 주로 이용하여 꽃의 형상을 이루고 있으며, 방사형 대칭적 균형과 강조, 초점을 보여주고 있다.</p>	 <p><그림 20> 꽃문양 - 中华传统老作坊--走近染布坊, p.120.</p>	<p>사랑, 자연숭배</p>
	<p>점과 선을 이용하여 다양한 식물의 형상을 만들고, 동적인 선으로 리듬과 동세를 표현하고 있으며, 비대칭 균형으로 생동감을 더해 주고 있다.</p>	 <p><그림 21> 혼합식물문양 - 贵州传统蜡染, p.119.</p>	<p>사랑, 자연숭배</p>

형태로 추상적 표현을 한 원시문양이다.

이와 같이 문양 소재의 원천을 고대 유물의 문양이나 고대로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주술적 문양과 전설·신화에서 비롯된 조상숭배, 자연숭배, 토tem숭배 등의 상상화를 토대로 표현하는 측면에서 문양의 원시성을 찾아 볼 수 있다.

(3) 사실성·추상성

고대 묘족의 의사소통 및 민족 표시의 기호 수단으로써의 실용성은 물론 원시성, 주술적, 상징성, 그리고 상상을 토대로 한 추상적 표현과 사실적 표현 등은 원시미술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표현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표 5>³¹⁾은 단채납염 문양 표현의 사실성·추상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6>에서는 자연의 문양인 새와 꽃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림 27>은 고대 동고의 문양을 그대로 찍어서 기하학 문양 형태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28, 29>는 귀신숭배 사상에서 비롯된 신비주의에 의한 추상적 표현을 찾아볼 수 있으며, 원시미술에서와 같이 표현이 유아적이며 은유적 표현을 찾아 볼 수 있다.

(4) 장식성

묘족 납염은 묘족 샤머니즘의 조형예술의 하나로 복식 디자인의 주요 장식으로 자수, 십자수와 더불어 사용되고 있다. 복식 디자인에 장식적으로 사용된 납염문양은 주로 기하학문양이 많이 사용됨을 볼 수 있으며, 장식 부위로는 소매, 몸판의 앞과 뒤, 네크라인 등에 주로 사용됨을 볼 수 있다. 중국 귀주성 묘족의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장식성의 사례는 <표 6>³²⁾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채납염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납염 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6>은 귀주성 묘족의 3가지 여자복식유형에 따른 문양과 복식 디자인 장식이 적용 부위에 대한 설명이다. 복식유형을 삼도식, 단채식, 혁가식으로 분류하여 사용된 장식문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0>은 귀주성 삼도현 묘족의 성장(盛裝)복에 사용된 삼도식이다. 어깨와 등에 절개선을 이용하여 앞·뒤판 장식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장식한 채색 소용돌이문양이다.<그림 31>. <그림 32, 33>은 귀주성 단채현 묘족의 여성 명절 의복으로써 새·꽃문양의 납염이 포인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4>³³⁾는 귀주성 황평현 일대

<표 4> 중국 귀주성 단채납염 문양 표현의 원시성

구분	문양 종류		원시성
표현 방식			문양의 원천은 고대유물에서 비롯된 것이며, 주술적 상징문양과 원시미술 형태로 추상적 표현을 함.
	<그림 22> 고대 동고 - 中华传统老作坊--走近染布坊, p.118.	<그림 23> 동고문 - 民間染織, p.81.	
			
	<그림 24>청동기 묘족 벽화 - 본 연구자 사진자료	<그림 25> 원시문양 - 본 연구자 소장품	

<표 5> 중국 귀주성 단채납염 문양의 사실성·추상성

표현 방식	문양 종류	
사실성		
	<p><그림 26> 새와 꽃문양 - 中华传统老作坊--走近染布坊, p.107.</p>	<p><그림 27> 동고문 - 中华传统老作坊--走近染布坊, p.118.</p>
추상성		
	<p><그림 28> 귀신문양 - 民間染織, p.85.</p>	<p><그림 29> 귀신문양 - 民間染織, p.85.</p>

혁가식(革家式)의 평상복으로, <그림 35>와 같이 점, 선 등을 이용한 기하학 문양이 정교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상에서 복식의 장식에 있어 납염문양은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단채납염 문양은 자연숭배, 토템숭배, 조상숭배, 귀신숭배로 묘족 샤머니즘에 귀납되며, 묘족의 미의식과 종교적 이념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조형 예술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중국은 한족을 중심으로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서 다양한 민족의 전통문화가 보존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가치는 오늘날 전통문화에 대한 재조명과 재창조의 측면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시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된 중국 귀주성 묘족 단채납염의 표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귀주성 묘족의 복식문화는 묘족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미의식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묘족 샤머니즘 조형예술로서 화려하고 독특한 납염, 자수 등의 문양에 잘 표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고대 묘족사회로부터 묘족은 단풍나무를 인류의 발원지이자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숭배해오고 있다. 단풍나무 수지를 방염제로 사용했던 묘족의 납염공예는 진한 시대 이전의 풍염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문헌기록으로 중국 고대 납염은 묘족에게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중국 귀주성 묘족 납염의 표현기법에는 점납, 빙납, 다색납염이 있으며, 납염의 유형은 지역적 분포와 더불어 납염 문양의 표현기법, 납염 도안의 표현적 특징에 따라서 단채납염, 황평납염, 안순납염으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채납염은 동납도를 이용한 점납 기법으로 자유로움과 힘참, 풍부한 사생적인 문양 표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황평납염은 축침을 이용한 점납 기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하학 문양이 특징이다. 안순납염은 빙납과 다색납염을 통하여 현대적인 표현 기법과 함께 다채로

<표 6> 중국 귀주성 묘족 복식 디자인의 구조적 장식성

납염문양 복식	납염문양의 디테일	장식부위
 <p><그림 30> 삼도식 - 中华传统老作坊--走近染布坊, p.114</p>	 <p><그림 31> 소용돌이문양 - 中华传统老作坊--走近染布坊, p.113</p>	등, 어깨, 소매
 <p><그림 32> 단채식 - 본 연구자 사진자료</p>	 <p><그림 33> 새·꽃문양 - 본 연구자 사진자료</p>	가슴, 등, 소매부위, 넥라인
 <p><그림 34> 학가식 - 中国織繡服前全集 6, p.59.</p>	 <p><그림 35> 구름·기하학문양 - 中国織繡服前全集 6, p.59.</p>	소매, 등, 치마의 앞· 뒤,

은 표현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중 단채납염은 묘족의 가장 전통적인 제작기법과 천연염색인 납염을 통해 남청색의 백색문양을 얻는 것으로 귀주성 묘족납염을 대표하고 있었다.

4. 단채납염은 묘족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으며, 묘족의 민족성과 독창성, 창조성이 문양을 통하여 가장 잘 표현되고 있었다. 단채납염 문양은 크게 자연현상을 표현한 기하학 문양과 동식물 문양의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문양의 종류에는 기하학문양, 동고문, 와타문, 용문, 어문, 조문, 나비문양, 화초문양 등의 8가지가 있었다. 문양의 표현에 있어서는 묘족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영원성, 정신성, 길상, 조상·토맹·자

연·귀신 등의 숭배사상인 그들의 종교 관념이 상징문양을 형성하고 있는 상징성과 점납과 납염을 통하여 제작하는 전통성, 고대사회부터 사용되어 왔던 문양 소재의 원시성, 문양 표현에 있어서 사실성과 원시미술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표현의 추상성, 복식 디자인의 장식성 등의 조형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중국 귀주성 묘족 단채납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납초를 이용하여 염색한다는 점이다. 납초에는 향균, 방충, 소취 등 다양한 약성이 있어 각종 피부병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납염의 효능적 가치에 주목되며, 오늘날 환경문제의 대두에 따라 천연염색으로의 회귀가 요구

되어지고 있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한편 동납염을 이용해 납그림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납염공예라는 측면에서 호방한 민족성 표현을 엿볼 수 있으며, 사생적·창조적인 문양 표현에 있어 높은 풍격의 예술성과 함께 전통복식뿐만 아니라 생활 수공예품인 벽걸이, 이불, 가방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납염공예의 효능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의 재발견을 통해 향후 중국 귀주성 묘족 전통 납염공예의 가치와 활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1) 정하신(1992), “中國服飾禮制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0-50.
- 2) 김연정(1994), “中國內 苗族服飾에 관한 研究: 貴州省 苗族을 中心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0-82.
- 3) 김희섭(1998), “中國 苗族 女子服飾의 意匠學的 研究”,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82-171.
- 4) 김영신, 홍정민(2002), “中國 貴州省 苗族 여자 복식의 繡繪紋樣에 관한 研究”, *服飾*, 52(1), pp.21-36.
- 5) 김영신(2002), “중국 귀주성 묘족의 복식에 나타난 문양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1), pp.31-39.
- 6) 백계(2006), “중국 묘족의 갈래와 복식의 조형적 특징”,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1-67.
- 7) 정미숙(2008), “중국 귀주성 묘족(苗族) 여자복식의 구성과 수공예 기법”,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2-45.
- 8) 罗义群(1993), *中国苗族巫术透视*, 北京: 中央民族学院出版社, p.105.
- 9) 김희섭, op.cit., pp.28-29.
- 10) 양정문(2002), *묘족복식문화사*, 김예풍, 김예령(역), 경인출판사, p.517.
- 11) 吳淑生, 田自秉(1986), *中國染織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p.100.
- 12) 1959년에 발견된 동한시기의 부부합장묘이며, 신강의 중대한 고고학발견의 하나였다. 묘실에서 미이라 2체와 진귀한 문물이 출토되었다.
- 13) 화납(畫蠟)이라고도 하며 천위에 납으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으로써 점납은 묘족 납염의 기초적인 문양을 도안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납을 이용하여 무늬를 방염 처리하는 것으로서 방염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용 도구에 따라 문양 표현기법을 달리한다.
- 14) 점납으로 면을 표현하다가 우연히 납의 갈라진 틈사이로 염료가 침투하여 생기게 된 문양으로서 빙문(얼음무늬)이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크랙기법에 해당하는 빙납은 납의 균열을 위하여 납칠 후 건조한 다음 구겨서 고의적인 균열을 만들거나 외부 온도를 차게 하여 자연스러운 균열을 형성하게도 한다.
- 15) 張炳德(主編), *貴州傳統蠟染*,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4, pp.2-15.
- 16) 中國人民美術出版社(編), *中國工藝美術叢書·貴州蠟染*, 京都: 美乃美, 1981, pp.138-154.
- 17) 이민정(2008), “중국 귀주성 묘족의 납염 공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4.
- 18) 금계묘는 문헌상 나타나지 않은 묘족이지만 본 연구자가 배막촌 현지답사 중, 현지인 인터뷰 결과 발견한 소수 묘족의 일파임을 밝혀둔다.
- 19) 段建华(2006), *民間染織*, 北京: 中国轻工业出版社, p.111.
- 20) 徐凌志(2003), *中華傳統老作坊--走近染布坊*, 南京: 江苏少年儿童出版社, pp.126-140.
- 21) 이민정, op.cit., p.57.
- 22) 양잡연 설명에 의하면 매염제로 CaCo3(탄산 칼슘염)과 전통 곡주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통 곡주에 따라서 색상의 차이를 낼 수 있고 염색의 견뢰도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 23) Ibid., pp.78-79, 표 재구성.
- 24) 양정문, op.cit., p.416.
- 25) Ibid., p.397.
- 26) Ibid., p.398.

- 27) Ibid., p.404.
28) Ibid., p.403. 張炳德(主編), op.cit., pp.5-8.
29) Ibid., p.411.
30) 이민정, op.cit., p.82, 표 재구성.
31) Ibid., p.83, 표 재구성.
32) Ibid., p.85, 표 재구성.
- 33) 中国織繡服前全集 6: 小數民族服, 前 卷-下(深圳: 天津人民美術出版社, 2005), p.59.
이민정(2008. 04. 26), “중국 민간포(民間布) 전통 염색기법 조사연구: 중국 귀주성 납염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5-40.
자료검색일 2007. 12. 03 자료출처 <http://www.hmongs.cn/html/ShowClass.asp? ClassID=365>
자료검색일 2008. 02. 10 자료출처 <http://www.nipic.com/show/1/24/50fcbf64c0bf1cfc.html>
자료검색일 2008. 02. 12 자료출처 http://www.hgscn.com/kr/kr_waxprinting.html

접수일(2010년 12월 9일),
수정일(1차 : 2011년 2월 12일),
게재확정일(2011년 2월 17일)